

주 제:	“믿음과 의심”	“연중 제 19 주일”	2008년 8월 10일
복음 묵상:	[마태 14,22-33]	[1 열왕 19,9-11-13]	[로마 9,1-5]

오늘 복음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대화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모습을 봅니다. 파도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뛰어 드는 베드로 사도의 믿음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일 것이고 끝 이어 의심을 하며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 온 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긴 인생 안에서부터 짧은 사건들 속에까지 이런 ‘믿음과 의심과 회심’의 삶이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의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고백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마태 14, 33)라는 고백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2 개의 고개를 넘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탄한 길만을 걷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심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많은 고개를 넘으며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정상에 올라섰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깊은 계곡에 빠졌을 때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수도 많은 고개를 넘어야 함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을 때 더욱 겸손하고 의심과 회의에 빠져 신앙 생활이 어려울 때 새로운 희망을 생각하며 하느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의정부 홍승원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박마리아 자매님 8/9-17 홍콩에서 자제분을 만나러 휴가를 떠납니다. 안전한 여행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 박 소피아 자매님: 가족동반 휴가를 떠납니다. 편안한 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 8/3 (일) 이재섭 니콜라스 와 이 필로메나 부부님께서 성가대원들을 위하여 맛있는 BBQ 파티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모든 성가대원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단원들은 기도중에 감사한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 이 은순 아네스 자매님은 8/1 부터 3 주간의 여정으로 동부를 여행중입니다. 여행중에 주님함께 하시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김효식 필립보 네리 형제님 가족들과 함께그랜드 캐년으로 여행다녀오셨습니다.
- 이 흥진 테레사 자매님 알라스카 가족 여행 무사히 마치고 돌아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
- 최효원도미니카 자매님, Kamca 의 Youth Symphony 단원들을 이끌고 서울 Summer Camp 를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김 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지난주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기도중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성가대 발전을 위한 단원들의 고전을 듣고 싶습니다.

▪ 성심성가대의 좋은점.

▪ 우리 성가대의 고쳤으면 더 좋을 점들을 적어 의견함에 넣어주세요.

○ 성가대 피정 (9/13)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은혜받을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또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아울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피정에서 CD 녹음을 할 예정이며 매주 녹음할 곡목도 아울러 연습할 것임.

알림

1. 성가대 피정(9/13)을 위한 두번째 모임을 미리 예고해 드린대로 8월 10일 오후 연습후(1:00PM)에 찾아오니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가 피정에 관심이 있는 단원은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피정이 되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2. 8월 17일 미사후 금봉황에서 신부님 환송을 위한 간단한 파티가 찾아오니 모든 단원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신부님을 위한 영적선물: 미사, 영성체, 묵주기도, 화살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희생, 등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영적선물의 숫자를 적어 금주내로 알려주십시오.

+ 복음 [마태 14,22-33]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 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 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네 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 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 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 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1분 명상

♡"중요한 것"♡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